

## 미등록 이주노동자에서 이주민 미디어 활동가로:

MWTV 미디어 활동가 사례를 중심으로\*

정성신\*\*

### 1. 문제제기 및 연구 목표

그동안 이주노동자에 대한 배제와 차별은 인류학을 비롯한 여러 사회과학 분야의 주요 연구주제가 되었다. 초기 연구주제들은 그들이 소수자로서 처한 차별적인 위치로 인해 한국사회에서 배제되어온 현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개선책이나 사회적 인식전환을 요구하는 다소 계몽적인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이후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는 차별이나 차이에서 오는 갈등 속에서도 종족적, 민족적 연결망을 형성하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사회에 적응하려는 이

\* 본고는 연구자의 석사논문(정성신 2010)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본고를 심도있게 평가하여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 분들께 감사를 표하며, 평가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한 데 따르는 미진함은 전적으로 연구자의 역량 부족 때문임을 밝힌다.

\*\* 서울대학교 인류학 석사

주노동자의 실천이나 행위자성 등을 다루어 왔다(함한희 1997; 유명기 1995, 1997; 한건수 2003). 이러한 연구는 기존의 연구가 보여주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피해자화’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저항에 강조점을 두므로써, 기존 연구가 이주노동자들을 위치 짓는 방식이 지니고 있었던 관성을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논의되었던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연구 내용은 이들의 경계를 작업장이나 이들의 종족네트워크로만 한정하여 이들의 행위자성이나 실천을 드러냄으로써 행위 주체로서의 이주노동자의 가능성을 오히려 제한시키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기존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논의는 이주노동자의 삶의 독자성과 사회적 배제에 주목한 나머지 외부 세계와의 관계, 외부 세계로부터 오는 영향에 대해 크게 주목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배제된 집단이라는 시각을 통해 이주노동자를 동질화된 집단으로 바라보게 하여 이주노동자의 개별적인 경험과 이들의 생활세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이끌어내지 못하게 한다. 특히 한국사회로 유입된 상당수의 이주노동자들이 단기체류에 머무르지 않고 적게는 5년 많게는 10년 이상 한국사회에 정착하면서 ‘정주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주노동자가 작업장에만 매몰되거나 한국사회와 단절·분리된 대상으로만 환원될 수 없으며, 작업장을 넘어 자신들의 생활세계를 구축하면서 한국사회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환기시킨다. 장기체류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현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주노동자가 한국사회의 문화를 어떻게 수용하고 활용하는지, 이주 자체로 인해 어떠한 새로운 조건이나 기회가 제공되는지, 이로 인해 이주노동자의 생활세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주민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효과와 사회현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등 한국사회와 단절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접촉하면서 나타나게 되는 이주노동자의 생활세계의 변화와 이를 토대로 한 이들의 행위주체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 미디어 활동가’(migrant media activists)의 출현과 이들의 실천이 가지는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자가 연구대상으로 주목한 비영리 민간단체 ‘MWTV’(Migrant Worker’s TV, 이하 MWTV)의 이주민 미디어 활동가들은 과거 미등록 이주노동자로서 살아왔으나, 현재는 이주노동을 하지 않고 자신들이 미디어 단체를 직접 설립하여 PD, 기자, 앵커, 다큐멘터리 감독, 영화배우 등의 미디어 활동을 펼쳐나가면서, 이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드러나는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부각시키고 한국 사회의 공공영역으로의 진입을 끊임없이 시도하는 특수한 집단이다. 아울러 이주민 미디어 활동가들 모두는 한국사회에 10년 이상 거주한 장기체류자들이란 특징 또한 나타난다. 한국사회에서의 장기체류 경험은 작업장에서의 경험을 포함하여 이들의 생활세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영향은 한국사회에서 ‘미등록 체류자’로서 겪게 되는 차별과 배제, 억압의 사회적 압력을 포함함은 물론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접하고 경험한 교육과 학습의 기회, 발달된 미디어 환경에 대한 수용과 실천이 그 내용이라 하겠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에 이주노동자로 살아왔던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다양한 갈등과 상호작용을 경험하면서 MWTV라는 이주노동자 미디어를 만들게 된 계기와 사건을 살펴보고, 이주노동자에서 미디어활동가로 변화했던 모습을 추적함으로써, 이주노동자들이 만든 이주노동자 방송국의 형성 배경을 알아보며 미디어 활동을 통해 드러나는 미디어 활동가들의 행위주체성과 역능성(empowerment)을 드러내고자 한다. 아울러 이주민 미디어 활동가들이 한국사회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들이 미디어를 통해 주장하는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 역시 본 연구의 중요한 목적이라 하겠다.

한편 이주민 미디어 활동가들의 활동은 현재 한국사회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다문화주의라는 화두에 ‘부합하는’ 현상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주 노동자 방송국의 출현과 이주민 미디어 활동가의 활동은 한국의 다문화주의나 다문화정책의 흐름에 조용하여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이주노동자의 체류문제를 통해 발생한 생(生)과 자기 정체성의 문제 혹은 정체성의 재현에서 비롯된 것이며, 연구자는 이들이 미디어를 매개로 펼치는 다양한 실천양상을 ‘생명정치’(bio-politics)와 ‘정체성 정치’(politics of identity)라는 두 축 사이에서 벌어지는 권력관계의 한 패러다임으로 보고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한국사회와 이주민 사회에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주민 미디어 활동가들의 과거 명동성당과 성공회성당에서의 농성 참여에 대한 기억과 경험, 현재 이주노동자 방송국에서 펼치고 있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들이 주장하는 생(生)과 정체성의 문제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들의 활동과 실천 양상이 근대국민국가로서의 한국사회와는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과 연구방법

### 1) 근대국민국가와 ‘생명정치’

푸코(1990)는 근대 이후 생명은 (국가)권력에 의해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을 넘어서 ‘내버려두는’ 대상에서 ‘만들기’의 대상으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는 근대 이전 주권자의 권력이 죽음을 정치화하는데 반해, 근대 이후의 생명정치에서는 국민 만들기를 통한 근대국민국가의 생명의 기획과 재생산이 정치의 핵심쟁점이 된 것을 의미한다. 국민으로 대변되는 생명이야말로 권력이 관여하고, 조절하고, 증대시키고, 확산시켜야 할 일차적인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완벽한 근대국민국

가'의 재현이 가능하리라 생각했던 국민국가의 이상은 세계화와 국가의 경계를 넘는 대량의 노동인구의 출현으로 인해 국가 내부의 이질성, 차이가 증대되면서 '탈국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아파두라이 2004). 강박증과도 같은 국민국가의 '무오류성'이 별거벗겨지게 되면서 국민국가 내부에 '위기'(risk)가 발생한 것이다(백 1997; 헌팅턴 1997; Giddens 1990; Lewellen 2003). 이제는 '국가 경계 내부에 포함된 외부인들'을 어떤 식으로 통제, 관리하느냐가 관건이 되었고,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나드는 인구의 대량 이동 및 정주화가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의 현 국면은 국민국가의 역할과 기능을 재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논의의 초점을 한국의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문제로 한정해 보자. 2003년 시행된 고용허가제는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그동안 보장되지 않았던 노동권을 제한적으로 부여한 제도이기도 하지만,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강제추방 정책이기도 하다.<sup>1)</sup> 우리는 여기서 이들에게 행사되는 강제추방 정책이 국가에 의해 새로이 등장한 '생명정치'의 한 방식임을 간파하게 된다. 이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추방 정책은 이들의 신체와 몸을 매개로 배제와 분리를 통해 행사되는 국민국가의 또 다른 '인구관리' 방식인 것이다. 여기서 '별거벗은 생명'(Homo sacer, bare life)과 '예외상태'라는 개념을 통해 푸코와는 다른 생명정치의 문제를 제기한 아감벤의 논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감벤(2008)은 호모 사케르와 예외상태에 대한 분석에서 '법을 결여한 법의 힘'이라는 역설을 통해 은폐되어 있는 인간의 정치적 삶의 문제와 생의 불확정적 상황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근대 생명정치의 핵심 과제로 보고 있다. 그는 한 사회에 통용되는 내적인 규칙(법, 제도, 관습, 사회적 규범)이 정지되고 중지되는 상태를 '예외상

1) 합법적인 이주노동자가 처음에 노동권을 보장받았다 하더라도 오랜 노동 이주 기간으로 인해 '잠재적인 불법 체류자'로 남게 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생명정치는 이주노동자의 문제와 동일하다. 합법적인 이주노동자 역시 생명정치의 대상에서 잠시 유보되었을 뿐인 것이다.

태'로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상태에서 호모 사케르의 몸과 신체, 생명을 통해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형태의 근대권력이 관철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아감벤의 논의를 통해 한국사회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상태와 위치를 고찰하여 보면, 한국사회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구관리 즉 국가의 통치 방식은 그 국가 혹은 사회에서 통용되는 일종의 내적 규칙성 즉 법적, 제도적인 절차나 문화적인 관습 등을 '정지, 중지'시키면서 '예외상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예외상태에서 국가 권력은 물리력을 합리성이나 '합법성'을 가장한 방식으로 이주노동자의 몸과 신체를 통해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가령, 현재 한국사회에서 자행되고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 단속이나 추방, 물리적인 폭력의 행사 등은 국가 권력이 '사회인'으로서의 위치나 상태<sup>2)</sup>에 적용하기보다는, 이러한 신분상의 위치와 상태를 정지시키면서 동시에 이들의 신체와 몸을 통해 관철되는 '새로운' 형태의 국가권력이라 할 수 있다. 미등록 이주자들은 국가에 의해 소위 '불법 체류자'로 호명됨으로써 신체에 대한 물리적 폭력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별거벗은 생명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푸코의 생명정치와 아감벤이 제시한 별거벗은 생명의 등장은 근대국민국가의 존속과 유지라는 관점에서 일맥상통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대국민국가가 생명자체를 정치의 쟁점으로 만드는 동시에 그것을 통해 국가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존속의 이유를 드러내는 측면에서 그러하다.

## 2) 인정투쟁과 '정체성 정치'

별거벗은 생명이 되었다는 사실은 귀속의 문제와 관련지어 볼 때

---

2) 이주민, 이주노동자의 국적, 시민권, 노동자로서의 신분과 권리 등과 같은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지위나 상태를 포괄한다.

이들이 어느 곳에도 소속되지 못한 ‘무국적자’<sup>3)</sup>라는 의미로 해석 가능하게 한다. 왜냐하면 (푸코에 의거해) 이들은 자신의 귀속감을 확인시켜 줄 고국에서 ‘분리’된 존재들이며, (아감벤에 의거해) 타국에서 생명정치 대상으로 환원된 존재이기 때문이다. 국민국가에 의해 ‘국가 없는 예외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생명정치의 문제와 별거벗은 생명(Homo sacer, bare life)의 출현이 필연적으로 정체성의 문제를 수반하게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국가에 의한 분리와 ‘근대적 폭력’의 경험, 국민국가에 의해 별거벗은 생명으로 전락한 자기 상황에 대한 인식을 통해 정체성의 훼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별거벗은 생명으로서 이주노동자들에게 결부된 또 다른 문제는 이들이 ‘범죄자’로 환원되기 때문에 정치, 사회, 문화적 ‘권리가 없는 타자’의 문제로 귀결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자신을 규정하는 타자로부터 권리의 문제를 협상, 해결하는 것이 손상된 정체성을 회복하는 열쇠가 된다. 호네스(Honneth 1992)는 ‘인정투쟁’(struggle for recognition)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면서 사회적 권리를 인정받고자 하는 심리적 기제를 미드의 고전적 테제인 ‘주격인 나’(I)와 ‘목적격인 나’(Me) 사이의 관계를 통해 설명한다. 미드(Mead 1963)는 일반화된 타자의 관점에서 자신을 규정할 수 있는 개인들의 자기이해는 주체와 타인간의 상호주관적 ‘인정’(recognition)의 과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주격인 나는 타인이 나에게 대해 가지고 있는

---

3) 물론 초국가적 이주와 초국가성을 연구하는 논자들은 자국과 이주민사이의 관계에서 비롯된 이주민의 정체성 연구를 통해 자국에 대한 귀속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정착국에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면서 이에 따른 변화된 권력을 행사하는 행위주체로 위치시킨다(Schiller 1999; Schiller & Fouron 2001; Tsuda 2003; Louie 2000). 그러나 이주자들을 국민국가의 틀에서 자유로운 행위자임을 강조할 때 혹은 본국과의 관계에 초점을 둘 때, 이들이 적응하고 생존해야하는 정착국에서의 갈등, 대립, 폭력과 교섭(불)가능성과 소통(불)가능성의 문제와 이슈는 간과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Smith 2003). 이주민과 탈영토화된 공간의 가능성에 대한 초국가론자들의 논의 역시 국민국가의 폭력이나 억압이 드러나는 공간은 아닌지 ‘계토화’의 또 다른 현상은 아닌지 등에 대해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김광익 2010).

어떤 상이나 기대를 인지하면서 목적적 나에 대한 심상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이해는 나에 대한 타인의 관점이 나에게 내면화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 입각하여 호네스는 타인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정체성을 훼손당한 상황에 처한 ‘목적적 나’의 존재는 주체로 하여금 ‘주격인 나’를 위해 새로운 인정의 형식을 모색하게 함으로써 스스로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고 이야기한다. 새로운 인정의 모색이란 자신의 권리와 정체성의 인정을 위해 ‘주격인 나’는 타인이 규정한 ‘목적적 나’에게 부여된 가치, 규범, 이데올로기를 해체하고, 그것들을 규정하는 타인에게 합리적이고 사실성과 타당성에 근거를 둔 발화나 행위를 통해 자신의 존재와 권리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호네스는 이처럼 권리 인정을 위한 개인, 집단의 다양한 사회적 행위 양식을 인정투쟁으로 정의한다. 이때 인정투쟁의 내용은 권리를 인정받는 것뿐만 아니라, 타자에 의한 문화적 지배(cultural dominance), 불인정(non-recognition), 경멸(disrespect) 등 “표현, 해석, 의사소통의 사회적 양식에 뿌리 내린 문화적 부정의(cultural injustices)를 바로잡는 것”까지 포함된다(Fraser 1997; 정가영 2008 재인용). 프레이저는 비천하게 여겨진 개인, 집단의 손상된 정체성을 ‘상향조정’하고,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자신의 권리와 정체성을 인정받고자 한다는 점에서 인정의 정치를 ‘정체성 정치’의 한 부분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인정의 정치란 자신들의 잃어버린 정체성을 되찾는 것과 자신의 삶에 대한 자율성과 권리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김광익 1991).

지금까지의 논의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별거벗은 생명’으로 전락한 이주노동자들이 국민국가의 생명정치에 저항하는 인정투쟁의 양상과 정체성 정치 실천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이들의 행위주체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연구자는 MWTV라는 이주노동자 매체를 설립한 ‘이주민 미디어 활동가들’의 행위전략과 이들의 주장을 통



해 국민국가의 생명정치 내용과 인정투쟁 및 정체성 정치의 양상을 그려보고자 한다.

연구자는 2009년 2월부터 12월까지 용산구 용산동에 위치한 이주노동자 방송국 MWTV에서 현지조사를 진행하였다. 2004년 12월에 설립된 MWTV는 방글라데시, 네팔, 버마, 몽골,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러시아, 베트남 등의 8개국에서 온 이주민들과 한국인 활동가들이 이주노동자의 인권문제를 알리고 이주노동자의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하고 있다. MWTV는 위 8개국 언어 서비스 외에도 한국어와 영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 대표 1인, 한국인 대표 1인을 포함, 다국어 뉴스 앵커<sup>4)</sup>와 기자, 제작자, PD, 편집자 등 총 3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MWTV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주민이 영상을 직접 제작하여 케이블 채널 RTV와 인터넷을 통해 방송하는 특성을 띄고 있다. MWTV를 이끌어가는 핵심 구성원은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인 활동가 2명과 미디어 생산에 참여하는 한국인 활동가 1인, 이주민 미디어 활동가 6인이며 연구자는 이주민 미디어 활동가에 초점을 맞추어 심층 인터뷰와 참여관찰을 수행하였고 심층 인터뷰 시간은 보통 2시간가량 진행되었다. 연구자는 1주일에 4~5회 이상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면서 이들과 상당한 라포를 형성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촬영, 프로그램 제작과정, 이주민 미디어 교육, 운영회 회의, 번역작업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여 현지조사를 수행하였다.

---

4) 다국어 뉴스의 앵커로 참여하는 이주민들은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유학생, 한국인 대학생 등을 포함하여 10여 명에 이르지만, 이들은 주로 한 달에 2~3번 정도 뉴스제작에만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이다.

### 3. 농성하는 이주노동자

#### 1) 대량의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강제추방 정책

(뚜라, 체류기간 13년,<sup>5)</sup> 버마인, MWTV 운영위원)

한국에 지금 (이주민들이) 100만 명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22만 명이에요. 22만 명에서 20만 명까지 줄이려고 해서 한국정부가 세우는 대책이 뭐냐면 강제단속, 강제추방입니다. 강제단속 어떻게 할까 상상하기 생각하기 쉽지 않을 꺼예요. 강제단속 얼마나 하나면 ‘단속’이라는 소리만 들으면, ‘출입국’이라는 소리만 들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들 있어요. 그만큼 공포감이 큰 거예요. 그 다음에 2만 명 단속한다 하면, 출입국 직원 전부 합쳐봐야 1,000명도 안 되는데, 폭력배들까지 거기서 쇠파이프 사용해가지고 동원해서 단속하는 거예요. 출입국이 들어온다 하면 사람들이 5층짜리 건물에서도 뛰어내려요. (중략)

2003년 농성하고 있는 시기에도 자살하는 사람 12명 있었어요. 목매달고, 지하철에서 뛰어 내리고 이런 사람 있었어요. 얼마 전에도 단속 때문에 심장마비로 죽어가는 저희 친구 있었어요. 그 사람 멀쩡한 사람인데 ‘단속’이라고 이야기 듣고, 수갑 채우고 잡아가는데, 심장마비가 오는 거죠.

2003년 한국정부는 고용허가제 정책을 시행하면서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대대적인 강제단속과 강제추방을 단행하였다. 2003년 고용허가제가 시행되기 이전 이주노동자 대부분은 산업연수생 제도를 통해 연수생 신분으로 한국사회에 유입되었다. 문제는 산업 연수생들이 낮은 임금과 연수업체에서의 폭력으로 인해 연수업체를 이탈하여 다른 직장으로 이동하여 자유롭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되는 상황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들이 불법체류자라는 점을 중시하여 겉으로는 단속과 경고를 해 왔으나, 인력난에 시달리는 국내 노동시장의 조건을 고려해 달라는 중소기업

---

5) 본 논문에 제시된 정보제공자의 체류기간은 2010년까지의 체류기간을 의미한다.

업주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사실상 그들의 ‘불법’취업을 묵인하였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을 심하게 하지 않았다. 그러나 산업연수생제도 하에 나타난 30만 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2003년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면서 유례없는 대대적인 단속과 강제추방의 대상이 되었다.

정부의 강제추방정책으로 인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 중 일부는 외국으로 돌아갔지만, 대부분 숨어들었고, 300명 이상의 사람들은 11월 15, 16일 명동성당과 성공회성당에서 강제단속과 추방에 반대하는 농성을 시작하였다. MWTV를 설립한 구성원들 역시 2003-2004년도에 명동성당(약 380일), 성공회성당(약 80일) 등 전국 6개 지역을 중심으로 이주노동자 강제 추방에 반대하는 농성에 참여한 이주 노동자들이었다. 당시 성공회성당 농성에 참여했던 투라의 내러티브에서 보는 것처럼 강제 단속이나 추방, 외국인 보호소 감금, 추방당할 것에 대한 공포로 인한 자살, 물리적인 폭력의 행사 등은 대량의 이주노동자가 국가의 경계를 넘어 유입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근대국민국가의 통치 권력 즉 근대국민국가의 ‘생명 권력’이 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합법과 불법의 문제라기보다는 법 내부와 법 바깥의 문제이며,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관련한 (합/불)법적 지위 여부 문제와 강제추방이라는 처리방식은 원래부터 시행되어 왔던 법과 제도가 작동한 것이 아니라, 세계화로 인해 국경을 넘는 대량의 이주노동자가 출현하고 이로 인해 근대국민국가에 ‘위기’가 발생하면서 법과 제도의 형식을 빌려 감금과 추방을 가능하게 하는 생명 권력과 예외상태가 생성,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미등록 이주자들’은 국가에 의해 소위 ‘불법 체류자’로 호명됨으로써 물리적인 폭력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벌거벗은 생명’(Homo sacer, bare life)으로 전락하게 되었다(아감벤 2008). 국가 권력이 점철되는 곳은 다름 아닌 이주노동자의 신체와 몸으로써 이러한 물리적 폭력은 적어도 명시적으로 내국인에게 행사되는 법적 절차나 제도와는 구별되는 특징을 보인다.

다. 이는 이주노동자의 사회인으로서의 권리나 자격은 박탈되는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특정 권력이 ‘자연인’으로서만 존재하게 되는 이들의 몸과 신체를 통해 관철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인종, 민족, 국가, 시민권을 매개로 하여 근대국민국가의 감금, 추방의 메커니즘에 따라 ‘벌거벗은 생명’, ‘호모 사케르’를 생산하는 생명 권력의 또 다른 성격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아감벤 2008; Butler & Spivak 2007).

## 2) 교육과 학습을 통한 ‘이주노동자 정체성’ 형성

2003년 이주노동자 농성은 한국의 시민사회 단체와 노동관련 단체가 연대하면서 그리고 민주노총 등의 노동계와 이주민 센터 등 지원 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농성의 지속성은 증폭되었고, 농성을 통해 이들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정체성을 자각하게 된다. 한국인 활동가들의 교육과 학습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 정체성’을 맛보기 시작한 것이다.

(소모두, 16년 체류, 버마인, MWTV 대표, 스탱크래다운 밴드 리더)

대부분이 미등록 노동자이기 때문에 인식이 노동법이 우리와는 상관없다 이런 인식이 있어. 퇴직금 이런 것들도 완전히 남의 얘기야. 우리와는 상관없는 권리라는 이런 인식이 있어. 그런데 노동교육을 받으면서 미등록 노동자도 퇴직금, 야근수당, 산업재해 받을 수 있다는 거 알게 되었어. 그때 이주노동자들의 모습이 생생해. 그 때 당시에 한국인들이 노동법 가르치면서 퇴직금 받아야 한다고 가르쳤는데, 이주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받아야한다는 말을 듣고 정말 신기하게 생각해. 2003년 이전에 퇴직금 달라는 사람 보면 대단한 사람 처럼 보였어. 이주노동자들이 월급 못 받는 것을 당연히 받아야한다는 것은 다들 맞다고 생각하지만, 퇴직금 받아야 한다는 말 듣고 놀랐다 그 말 이지. 이제는 달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장들도 황당한 거지. 사장들이 이주노동자는 노동법과 상관없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는 대로 애들은 받아먹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시키는 거잖아. 그런데 우리가 등불을 딱 손에 넣어주니까 그것으로 다 보이는 거지. 노동자인 내 모습이 보이는 거야. 내가 노동자

인데 내가 퇴직금 못 받을 이유가 뭐냐. 미등록 노동자로서 퇴직금 받으려고 노력하고, 산재 신청하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내용에 있는 거 다 근로자 썬야. 처음에 미등록이면 노동자가 아니라는 주장이 있었어. 근데 미등록이 하는 일은 똑 같잖아. 합법이든 불법이든 똑같이 노동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생산력이 나와. 다같이 노동자인 거지.

소모뚜 내러티브에서 보듯이 우리는 이주노동자가 한국의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교육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학습을 통해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자각하기 시작함을 알 수 있다. 그는 “농성단의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농성에 들어오기 전에는 자신이 노동자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대한 원인 중 하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는 신분상의 위치로 인해 노동자로서 기본적인 권리조차 요구할 수 없는 구조적인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가령, 현재 MWTV에서 다국어 뉴스 앵커로 활동하고 있는 네팔인 먼주는 공장에서 손가락이 기계에 빨려 들어가 손가락 세 개를 잃는 사고를 경험하였다. 사업주가 치료비를 대신 내주었지만, 병원비로 손해를 봤다며 1년 동안 무급노동을 강요하였다고 한다. 먼주는 자신이 미등록 노동자였기 때문에 사업주의 강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했다. 왜냐하면 사장이 자신을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신고하여 강제추방당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컸기 때문이다. 퇴원 후 그녀는 하루 16시간 동안 공장에서 일해야만 했다고 고백했다. 먼주의 이야기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그동안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사회의 노동자로서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자신들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권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가늠하지 못하였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는 신분상의 위치가 스스로를 권리 없는 노동자로 인식하게 하는 주된 원인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그동안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던 상태는 일종의 권리의 행사가 중지 혹은 정지되어 버린 일종의 ‘예외상태’이자, 사업주의 일방적인 강요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별거

벗은 생명'의 모습으로 해석 가능하게 한다(아감벤 2008).

소모뚜는 노동법을 “어두운 길을 가고 있는 노동자의 손에 쥐어진 등불과 같다”고 비유하였다. 농성장에서의 노동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법, 산업재해보상법 등의 교육을 통해 미등록 노동자도 권리 있는 주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소모뚜는 그의 친구 소피아가 농성이 끝난 후에 과거 자신이 근무했던 직장으로 돌아가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요구했다고 했다. 한국 근로자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했던 권리들이 미등록 이주노동자인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을 알고 난 뒤에 소피아가 이를 행동으로 옮긴 것이다. 과거 퇴직금 받는 것을 신기하게 생각했던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자에게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는 ‘노동자’의 모습으로 변모한 것이다. 이는 ‘자신의 언어’를 거부당한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의 말’을 갖게 되는 현상이자, 그동안 사적인 문제로 치부되었던 것을 공적인 문제로 환원시키는 정치적인 행위이다(김광익 1991). 이러한 변화는 교육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노동자로서의 목소리를 가지게 되면서 가능하게 된 것이었다.

이처럼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행위는 알 수 없음으로 인해 ‘말할 수 없었던’ 권력관계의 고요한 표면을 깨뜨린다. 노동법을 거론하며 퇴직금을 요구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모습에 사업주는 당황하게 된다. “너 불법인데 퇴직금이 너와 무슨 상관있어?”라고 이야기하는 사업주에게 “미등록, 합법, 불법은 출입국에서 따지는 것이지 노동부나 사장님이 따질 사항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우리도 노동자입니다. 제가 불법체류자인 것이 사장님에게 언제 해가 된 적이 있습니까?”라고 말하면서 사업주를 당황하게 만든다. 이는 권리를 지닌 노동자의 모습 다름 아닌 것이다.

(팅톤, 17년 체류, 버마인, MWTV 미디어 교육자 겸 PD)

그런 법들 배우니까 열 받지. 짜증나지.(웃음) 한국(노동자)도 그래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는(노동과 관련된 법, 제도) 학생들이 배워야 해요. 언젠가는 노동자가 돼. 다른 거 아니라, 기본적인 노동권, 노동교육, 왜 노동해야 하는 지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 내가 설문조사 했어요. 학생들한테. 내가 40명 정도 설문했는데, 내가 왜 노동자라고 생각해야하는지, 노동교육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봤어요. 그런데 왜 받아야하는지,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생각 안하는 거예요. 한국의 학교에서 이런 교육 안하잖아. 이런 교육 있는 게 좋잖아요. 마음 자체가 달라지는 거지. 대비가 필요한 거지.

‘권리 없는 위치’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노동자로의 인식 변화는 농성에 참여한 이주노동자들에게 일종의 해방감과 자존감을 안겨주게 된다. 텃툰은 농성장에서 노동법을 배우면서 “그런 법들 배우니까 열 받지. 짜증나지. 열 받지. 배우지 말았어야 했다”라고 이야기했으나, 당시 그의 표정에서는 오히려 쾌감이나 기쁨, 해방감의 표정이 담겨있었고, 연구자에게도 노동교육을 배워야한다고 권고하기까지 했다. 텃툰이 이주노동자에게는 물론 자신이 다니고 있는 대학의 학생들에게 설문을 돌리며 노동권과 노동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질문 하거나, 학생들에게 노동자의 의미에 대해 확인, 환기시키는 작업은 그가 지닌 문제의식이 내적 수준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 공유하게 함으로써 (잠재적 노동자인) 학생들에게 공감대와 동의를 이끌어 내려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행위로 이해된다. 텃툰의 이러한 행위는 — 그동안 공장 노동자로서 작업장에서 규율권력이나 감시권력을 통해 ‘길들여진’ 유순한 신체로 살아왔던 것과 비교해 볼 때(푸코 1990) —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기통치 능력을 발휘하고 자신이 기획하는 삶을 만들어 가는 실천양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에 대한 통치, 즉 자기 배려와 ‘자기 테크놀로지’의 권리를<sup>6)</sup> 실천하는 하나의 모습인 것이다(푸코 1997). 이는 권력의 전략적 관계들 속에서 지배 권

---

6) 푸코(1997)는 이를 ‘반규율적인 새로운 권리’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권리는 ‘살 권리, 자유로운 권리, 떠날 권리, 박해받지 않을 권리, 통치들에 대해 정당방위 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력의 기술들과는 다른 새로운 자기 구성의 기술을 실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타인과의 관계 (즉, 지배 권력과의 관계 그리고 지배 권력에 대항하는 저항의 지점들 사이의 평등한 관계) 속에서 확립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 통치의 개념은 지배 권력에 의해 포섭되지 않을 뿐 아니라, 스스로 지배 관계를 구성하지도 않는 일종의 ‘생명윤리’의 한 방식을 보여준다(푸코 1997). 텅톤의 노동자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그의 행위는 지배 권력에 의해 포섭되고 마는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라,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하고, 한국 사회구조의 모순과 부당함을 고발함으로써 타인에게 공동의 이해나 관심을 이끌도록 하는 자기 통치의 한 방식인 것이다.

(뚜라, 체류기간 13년, 버마인, MWTV 운영위원)

2004년에 한국정부가 그렇게 강제추방 정책을 세웠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익을 얻은 면이 있습니다. 정책, 제도적으로 우리가 얻은 것 별로 없지만, 우리는 인재들을 얻었습니다. 이주민 활동가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버마 행동(버마 액션)이라는 조직도 만들어지고, 이주노동자 방송국이라는 MWTV라는 방송국도 만들어지고, 또는 이주 노조도 만들어지고, 또는 이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다국적 밴드, rock 밴드 스탑크랙다운(Stop-Crackdown)이라는 밴드도 저희가 만들어 지고... 현재에는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의 활동들이 제가 보기에 지금 한국의 100만 명의 이주민들을 대변해서 활동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이주노동자 농성이라는 이들의 집단적인 저항과 정부에 대한 강제 추방 반대 요구는 한국정부의 고용허가제 전면 시행이라는 법적, 제도적인 벽을 뛰어 넘지는 못했고 결국 농성은 철회되었다. 하지만 2003년 말부터 2004년까지 지속된 농성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이후의 한국에서의 또 다른 삶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생애 전환기적’ 사건이 되었다. 이들의 농성 철회가 이들에게 실패의 경험을 안겨주었다기보다는 또 다



른 운동방향을 모색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음은 이후에 일어난 이주민 활동가들의 활동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본 연구자가 살펴보게 될 MWTV(이주노동자의 방송국: 이하 MWTV)의 활동 역시 이주노동자 농성의 철회 후 다른 방식의 이주노동자 운동 실천방식의 연속이자 재생산이라 할 수 있으며, 한국사회의 물적, 인적 자원이 이들의 운동, 실천과 결합하여 운동의 지속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도구가 되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다음 장에서는 MWTV라는 방송매체의 활동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떠한 특성과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이주민 미디어 활동가로 활약하면서 변화된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 4. MWTV와 이주민 미디어 활동가

(마블, 11년 체류, 방글라데시인, 다큐멘터리 감독 겸 영화배우)

이병한씨가 (이주민 방송국) 우리 만들 수 있다 제안 했어. 그 때 해미니 네팔친구도 같이하자고 제안하고, 푸라씨도 내가 같이하자고 제안하고 4명이서 RTV를 방문하고 RTV를 알게 되고 RTV 시설 같은 것 있고, RTV 직원 분들하고 회의하고. (중략)

11월 18일 날이 이주민의 날이잖아. 그날 맞춰서 사실은 <이주노동자가 말하는 한국사회> 토론 프로그램 100분짜리를 만들게 됐지. 처음에 그것을 만들게 됐고, 처음 하다 보니까 신나는 거지. 왜냐하면 이때까지 그런 프로그램이 없었고, 편집 당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말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렇게 힘을 얻고... 나중에 (뉴스, 다큐멘터리 같은) 다른 프로그램까지 하고...

(푸라, 체류기간 13년, 버마인, MWTV 운영위원)

이주민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자. 왜냐하면 길거리에서 집회하고, 기자회견하고, 시위하고 모든 것들이 우리 목소리를 들어 달라 이렇게 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안 들어 줘요. 또는 (한국 주류) 미디어들이 우리 목소리를 실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목소리를 낸다면 우리는 이주노동자들의 입이 되어주자, 또는 우리는 이주노동자들의 귀가 되어주자. 입과 귀가 되어주자, 그

것이 우리 방송의 기초적인 기본적인 목표였어요.

위에서 제시된 마복과 뚜라의 네러티브에서 알 수 있듯이, 농성에서 한국정부 혹은 한국사회와의 소통의 부재와 한계에 대한 인식은 이주노동자 운동의 방향성에 대해 일정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고, 이들에게 또 다른 소통방식에 대한 필요성을 야기하였다. 농성 당시 이들의 목소리가 몇몇 주류 매체를 통해 전달되기는 했지만, 이들의 목소리는 왜곡, 굴절되거나 피상적인 수준에서 재현되었을 뿐,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기에는 여러모로 한계가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들은 자신들이 제작한 방송, 미디어라는 대안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농성이 끝날 무렵 방글라데시 출신의 마복과 버마 출신의 뚜라, 그리고 네팔 출신의 해미니는 우연히 참석한 이주민 관련 간담회 자리에서 ‘MixRice’라는 한국인 예술 단체에 소속된 화가 이병한 씨를 만나게 된다. 이 자리는 이주민 미디어라는 또 다른 방식의 이주노동자 운동의 실천과 그 방향을 모색하도록 한 계기가 되었다. 이병한 씨의 도움으로 2004년 12월 마복과 뚜라, 해미니는 시민방송 RTV를 통해 <이주노동자들이 말하는 한국사회>라는 토론 프로그램을 기획, 제작, 방송할 수 있었고, 이후 텃툰, 소모뚜, 미누, 어숙이 기자와 PD로 참여하면서 다국어 뉴스와 토론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2005년 초 시민방송 RTV 사무실에 책상 하나를 놓고 시작하였지만, 2008년 용산에 있는 연구공간 ‘수유+너머’에 사무실과 작은 스튜디오를 마련하면서 비로소 자체 방송국으로서의 외관을 갖추게 되었다.

MWTV는 타 미디어와 달리 취재, 기획, 제작, 편집, 보도를 담당하는 핵심 구성원 6명과 다국어 뉴스 앵커, 번역으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 대부분이 이주노동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들과 연대하는 한국인 활동가들 역시 프로그램의 기획에 참여하고 있지만, 이들의 의견은 여러 의견들 중 하나일 뿐 지배적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

지 않는다. 이는 이주민을 ‘돕는’ 시민사회 활동가들과 이주노동자 미디어 활동가의 관계가 ‘평등한 관계’에 기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무엇보다도 제작과정에서 이들의 영향력이 100% 발휘되는 것은 이들이 정부 및 기타 지원단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구별 짓고 자신들이 주체가 되어 이주노동자 공동체의 삶과 이해에 복무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심보선 2006). 그 동안 지원단체, 시민단체, 센터, 주류미디어, 국가 등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한국 사회의 태도와 이주노동자 간의 관계가 불균등, 비대칭적인, 배제적 관계에 놓여있음을 상기해 볼 때(김광억 2010), 이러한 멤버간의 평등한 관계는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멤버간의 평등한 관계 설정은 종래의 한국인과 이주노동자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사회의 경제영역에서 일정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이주노동자는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공적영역의 외부에 존재하거나 비가시적인 존재로 자리매김 되어 왔으며, 주류매체를 통해서도 특정 이미지로 재현되거나 왜곡되어 왔다(한건수 2003). 멤버간의 평등한 관계 설정은 이러한 ‘관계의 불균등성’을 회복하려는 의도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MWTV 설립 초기부터 외국인 대표 1인, 한국인 대표 1인의 2인 대표체제로 운영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 기인한 것이다.

한편, 이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해방구이자 소통구인 방송과 인터넷 매체 즉 ‘가상의 공간’의 생성은 자신들이 한국사회에서 부딪히게 되는 ‘그들만’의 문제를 농성장이라는 ‘면대면의 공간’에서 방송, 인터넷이라는 ‘비면대면의 공간’으로(Tsuda 2003) 확장시킴으로써, 한국사회에 이를 지속적으로 표출하거나 호소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동시에, 이주노동자로서 집단적인 정체성을 유지 및 강화시키는 매개로 작용하게 된다(앤더슨 2002; 아파두라이 2004). MWTV 인터넷 방문자 수는 하루 3천에서 6천 정도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1년 현재 63만

이상의 누적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방송,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을 선택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방송과 인터넷이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이들의 주장이 전개되면서, 이 공간이 누구도 구속할 수 없는 자유로운 ‘농성’의 현장으로 재구성 된다는 점에 있다. 권리 없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혹은 법적으로 자유가 없지만 자유를 요구하기 위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자유를 행사하는 장소로서, 모순되면서 동시에 역동적인 ‘공적 공간’을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가, 영토의 경계 외부에 있던 혹은 ‘예외 상태’에 놓여 있던 이주노동자의 위치가 매체라는 ‘탈영토화된 공간’을(아파두라이 2004; 레비 2001) 통해 경계의 내부로 혹은 공적 영역으로 진입하게 되는 아이러니를 야기 시킨 셈이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사이버 공간에 진입한 이들은 또 다른 정치적 공간을 창출함으로써 스스로의 정치적 주체성을 구축하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레비 2001).

한국사회에서 그들의 활동 양상은 인터넷이나 방송을 통한 가상의 공간뿐 만 아니라 다양한 ‘공론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되었다. MWTV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주민들은 미디어 활동을 하면서 영화배우, 감독, 다문화 강사, 다국적 밴드의 뮤지션, 이주민 미디어 강사 등의 다양한 타이틀을 획득하게 되면서 그들이 활동하는 물리적인 범위 또한 넓어졌다. M사나 K사와 같은 주류 방송사들은 이들이 만든 영상물을 요청하여 뉴스를 통해 방송하기도 하고, 한 주류 신문사는 MWTV와 공동으로 다문화 사업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언론에 공공연히 이들의 활동이 소개되거나 대학 강단에서 특강 요청이 쇄도하기도 한다. 이들은 한국의 대학 강단에 서서 이주민과 관련된 특강을 하고, 각종 포럼, 학술회에 패널로 참석하여 이주노동자 문제를 둘러싼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한국사회에 표출한다. 한국 사회의 변화를 요구하거

나 스스로없이 말 할 수 있는 자유와 기회가 주어지고, 한국사회에서 이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늘어난 것이다. 다시 말해 한국사회의 이주민 미디어 활동가로서 이주노동자, 이주민 담론을 생산하는 ‘지식인’의 모습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비가시적인 영역에 매몰되거나, 경제적 도구로 환원되었던 그들의 삶의 영역이 미디어 활동가가 된 이후에는 가시적이면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나 통로 자체가 넓어짐을 의미한다. 다양한 단체, 조직과 연대하면서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7) 이는 그들이 더 이상 ‘경제적인 도구’나 ‘생명뿐인 존재’로서가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사회적인 존재’나 ‘정치적인 주체’로, 또 한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변화가 일어남을 의미한다. 여기서 정치적 주체 혹은 사회적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는 미디어 활동가들이 언어와 행위에 의해 정치적인 삶을 부여받았으므로써 ‘공론장’에서의 행위주체나 참여자로 인정받았음을 뜻하는 것이다(하버마스 1998; 아렌트 2001; 아감벤 2008). 이러한 ‘인정받음’의 의미가 이들의 내적 정체성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가는 다음 어숙의 사례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어숙, 10년 체류, 네팔, MWTV PD, 2009년 12월 네팔 자진 출국)

MWTV 하면서 보람을 느낀 적은. 그런 거 느껴요. 저는 일반 사람인데 사실은 2005년 전까지는 공장 다니고 일반사람이죠. 그때는 저를 아무도 모르고, 그런데 지금은 네팔 사람들이 모두 저를 알아요. 어숙을.

그리고 어제 행사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상 받았어요. 큰 거 아니고 조그만 거. 그렇지만 큰 거, 작은 거 떠나서 그 사람들이 나를 리스펙트한

---

7) 연구자는 MWTV가 한국사회의 여러 단체들과 다양한 연대를 맺고 있는 사실을 2009년 4월 이주노동자의 방송 4주년을 기념하는 후원의 밤 행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지역 미디어 교육 단체, 변호사 인권모임,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같은 노동단체, 외노협과 같은 이주민 지원 단체, 지역의 이주민 자치단체, 카톨릭, 불교, 개신교 등의 종교단체, 자원 봉사료 후원하는 중·고등학교 학생 등 60여 개 이상의 단체와 500여 명의 사람들이 MWTV를 후원하고 이날 자리에 참석하였다. 03-04년 농성 당시 노동계와 이주민 센터 등과 연대했던 것과 비교하면 비교적 연대의 폭이 다양해지고, 넓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나는 네팔 기자로 있는 사람이고 잘 못 하지만 그런 이름이 있으니까. 한국에 네팔 이주노동자 공동체가 있어요. 거기에서 어제 저한테 상 줬어요. 제가 느끼는 거 카메라 잡는 거 참 잘 했다. 내가 돈 벌 수 없지만 이름을 벌었다 생각해요. 공동체에서 저를 기자로 인정해주는 거예요. 기분 좋은 것도 있지만, 저한테 더 책임감 준 거 같아요. 왜냐하면 상 받는 거 보다 더 많이 줘야 한다는 생각 들어요.

네팔 이주노동자 공동체는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수호하는데 앞장선 공로를 인정하여 어숙게 공로상을 수여하였다. 위 어숙의 내러티브를 통해 ‘사회적 존재’로 인정받으면서 경험하게 되는 자기 긍정(self-acknowledgment)의 내적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사회적 존재로 인식 혹은 인정받게 된다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 사이의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의 내러티브에서 드러나듯이 자기 긍정의 경험은 그에게 미디어 활동의 지속성을 보장해주며, 그에게 미디어 활동가로서의 책임감을 부여하도록 한다. 타자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의 희망과 행위를 재평가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지평과 역량,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를 확대해 가는 것이다. 경제적인 여건은 작업장에서 일할 때 보다 나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더 이상 이주노동을 하지 않고 미디어 활동가로 생활하고 있는 모습 즉 ‘이주노동자의 예외적인’ 모습은 바로 이러한 연유 때문이다.<sup>8)</sup> 이들은 더 이상 이주노동자가 아니라 이주민 미디어 활동가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한국사회에 혹은 이주민 사회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구체적으로 미디어를 통해 어떻게 드러나는가? 또 다른 ‘농성장’에서 부르짖는 주장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

8) 이들이 이주노동자로 생활했던 과거를 돌이켜보자. MWTV PD로 활동하고 있는 미누는 과거 이주노동자였던 시절 하루 16시간씩 재봉틀을 돌리면서도 작업물량을 맞추기 위해 옆에 있는 동료와 단 한마디의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는 빠름의 미학에 익숙한 저임금 단순 노동자였고, 작업장에서 ‘침묵을 강요받던 비가시적인 존재’였다. 이는 신체뿐인 생명 혹은 별거벗은 생명의 모습 다름 아닐 것이다.

## 5. 상영되는 ‘생명정치’와 ‘정체성 정치’

### 1) 정보전달 통로로서 MWTV

(뉴스 제작 회의 중 텡툰과 미누의 대화 내용)

텡툰: 항상 여러 나라 친구들이 물어보는 거 보면은 ‘요즘 어떤 소식 있냐?’ (물어요) 그 소식이라는 게 법률적으로 어떤 소식이 있는지, 한편에서는 자기한테 어떤 보호가 되는지 그런 과정 알고 싶은 게 제일 많아요. 한국에서 일어나는 뉴스 같은 것은 머리속에서 사라지지만, MWTV 뉴스 보면은 자기들이 필요한 어떤 것을 알 수 있다. 언제든지 인터넷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미누: 이런 것들이 이주노동자들이 제일 듣고 싶은 것들인데, 정부에서는 영어로 나온 적도 없고, 한국어로 나오는 것도 이주노동자들에게 전달되는 게 없어요. 서로간의 루머, 실제로 아닌데,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듣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에 의존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이주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면 이주노동자들이 단속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좋은 것만 생각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더 이상 단속을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사회에서 필요한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현실과 권리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절히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주노동자가 유입될 때 국가와 기업이 이주노동자의 경제적 효용가치만을 고려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거나 적절한 교육 과정을 수행하지 않고, 이주노동자가 들어온 2~3일 이내에 작업장으로 바로 투입하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sup>9)</sup> 때문에 텡툰은 이에 대해 “처음 한국

---

9) 이주노동자는 입국 후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국내취업 활동에 필요한 취업교육을 받게 되는데, 2박 3일 20시간 동안만 취업교육을 받게 되고 이후 고용주에게 바로 인계된다. 이때 고용주 역시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 방지 및 근로개시 신고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사용자의 의무·권리 및 외국인근로자 관리방법, 고용허가제 개요 및 근로기준법 등을 교육받는데, 1시간 내외에서 교육이 끝나며

에 들어오는 이주노동자나 결혼 이주여성들에게 적어도 3개월 정도 언어나 문화교육 시간을 주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누차 강조한다.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에게 고용허가제를 통해 법적, 제도적으로 노동권을 보장한다 할지라도 한국어 사용이 미숙한 이주노동자가 짧은 교육시간 동안 법적, 제도적인 내용을 온전히 습득할 수 없는 것은 것이다. 당사자가 그 내용이 복잡하여 이해할 수 없거나 언어적 제약 등으로 인해 어떠한 권리와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기늠할 수 없다면, 그들에게 법과 제도는 유명무실한 법과 제도인 것이다. 또 미누가 “이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영어로 나오는 것도 없고, 한국어로 나오는 것도 이주노동자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없다”고 한 것은 한국 정부가 명목상으로는 이주노동자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했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정확히 습득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채널을 제공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정보가 정보 자체로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전달자와 수신자 사이의 적절한 매체와 채널이 필요할 터인데, 그것을 전달하는 매체나 채널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은 정보자체가 부재한 상황과 다를없는 것이다.

MWTV에서 보도되는 기사 내용 중 각 나라 소식이나 문화행사 보다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관련된 법, 제도, 정책과 관련된 기사가 가장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sup>10)</sup> 법, 제도, 정책과 관련한 정보는 이주노동자의 생존권, 생사여탈권과 직결된 정보로서 구체적으로는 임금체불, 산업재해 보상, 노동자 연대/노조, 사망/재해, 강제단속 및 추방 관련 뉴스 등을 다루고 있는

---

교육 후에 이주노동자를 바로 인제반게 된다(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참조 <http://fes.kbiz.or.kr/>).

10) 다국어 뉴스는 크게 노동권문제(22/44%), 한국뉴스(6/12%), 의료(4/8%), 세미나 워크숍 소개(4/8%), 자녀문제(3/6%), 각 나라 소식(3/6%), 문화행사(2/4%), 기타(6/12%)로 노동권 문제가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미디어액트 2006; 국경 없는 넷워크의 실현 이주노동자 방송 토론회 자료).



기사를 의미한다.<sup>11)</sup> 이러한 뉴스의 내용들은 노동부나 법무부에서 발표하는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 법, 정책 내용을 비중 있게 다루으로써 이주노동자가 이러한 소식과 정보를 알 수 있는 공적 통로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미누의 인터뷰 내용처럼 이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현실은 이주노동자가 한국사회의 노동자로서 어떠한 권리를 가지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지 못하게 하며,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에게 손해나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자신의 종족 네트워크,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유통되는 정보는 제한적이거나 부정확한 정보에 의존하게 되는 현상을 초래하며 그 결과 필요치 않은 비용과 시간낭비, 위험을 발생시키기도 하는 것이다. MWTV는 한국사회가 제공하지 않는 정보를 미디어를 통해 유통시킴으로써 이주노동자 스스로가 그들의 권리 보장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다.

## 2) 불합리한 제도와 모순적인 시선의 사유

이주노동자와 관련한 한국의 법, 제도, 정책과 관련된 내용은 이주노동자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의 역할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제도, 정책들이 내포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이나 모순점을 지적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이는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법, 제도, 정책이 이주노동자가 ‘불법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을 지적하는 동시에 이주노동자를 바라보는 한국사회의 부정적인 시선을 취재와 기사, 영상을 통해 드러냄으로써 그 부당함을 고발하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들은 법과 제도의 구조적인 모순과 한국사회의 부당한 시선의 내용을 미디어를 통해 어떻게 드러내고 있을까.

---

11) 노동권과 관련된 기사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이주노동자의 사망과 강제추방, 단속과 관련된 기사로 28%를 차지하고 있다.

어숙과 텅툰은 취재과정에서 합법적인 이주노동자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전락하는 제도적인 불합리함을 목도하게 되었다고 한다. 2008년 가을 제조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실태를 취재하기 위해 파주에서 일하고 있는 네팔인 K씨를 만났다고 했다. 당시 K씨는 가구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는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합법적인 이주노동자의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였다. 그가 여러 번 사업장을 옮겨 미등록체류자가 된 것이다.<sup>12)</sup> 처음 K씨가 한국에 왔을 때 인근의 한 농가에서 일을 했었다고 했다. 문제는 겨울철 농한기에는 일거리가 없기 때문에 3~4개월 동안의 농한기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쉬어야만 하는 것이었다. ‘같은 업종으로의 직장 이동만 가능하다’는 고용허가제도의 원칙<sup>13)</sup> 때문에 다른 농가에서 일을 찾아보려 해도 겨울철에는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직 신청을 하더라도 사업주의 승인이 있어야 직장변경이 가능하며, 승인 없이 이직할 경우에는 작업장 이탈로 간주하여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전락하게 된다. 더군다나 노동부에 동종업종으로 이직신청을 하더라도 신청 후 2개월 내에 본인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미등록 노동자가 되어 강제추방 대상이 되어버리기는 마찬가지이다. K씨는 일거리가 없는 겨울철 임금체불로 인해 사업장을 이탈하여 네팔인 친구가 있는 현재의 가구공장으로 ‘불법 이직’을 감행하였다고 한다. 그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는 불안감 보다는 고국에서 자신의 송금을 기다리는 가족의 상황이

12) 고용허가제는 원칙적으로는 사업장 변경을 3번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변경 사유가 사업주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휴업, 폐업, 임금체불, 폭력에 의한 것이라야만 가능하다. 변경사유가 모두 사업주의 선택에 의한 것이므로 이주노동자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서는 사업장을 변경할 수가 없다. 임금체불이나 폭행사실 역시 이주노동자 스스로 입증해야만 업체변경이 가능하다(중소기업 중앙회 홈페이지 참조. <http://fes.kbiz.or.kr/>).

13) 고용허가제도는 이주노동자에게 농업에서 농업, 제조업에서 제조업, 서비스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동종업종에서만 이직만을 허가하고 있으며 이직의 기회를 3번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를 어긴 이주노동자는 합법적인 체류기간 내에 있다할지라도 미등록 노동자가 되어 강제추방 당하게 된다(중소기업 중앙회 홈페이지 참조 <http://fes.kbiz.or.kr/>).

더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이직의 이유를 설명하였다. 합법적인 체류기간 내에 있는 이주노동자도 직장이동의 기회나 자율성이 제한되면서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된 것이다.<sup>14)</sup> 취재를 담당한 어숙은 “이러한 고용허가 제도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양산하는 불합리한 제도가 틀림없다”고 성토했다. 이주노동자에게 이직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현 사태를 막아야한다는 것이다. 어숙의 말처럼 가구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K씨의 사례는 이주노동자가 자신이 처한 환경과 위치에 따라 언제든지 미등록 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는 법제도의 구조적인 불합리함을 보여준다. 법과 제도의 불합리함은 합법적인 체류기간과 상관없이 이주노동자를 ‘별거벗은 생명’으로 가능하게 만드는 제도적 조건이자 일부 사업주에게는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도구적 기제가 된다. 사업주는 (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짐으로써, 사업주의 요구조건에 충실한 ‘말 잘 듣는’ 이주노동자를 생산하고 있다. 이는 구조적인 문제를 개인적인 문제로 환원시키면서 그들에게 가하는 — ‘죽음으로 내쫓게 만들거나 살도록 내버려두는’ — 생명정치(아감벤 2008) 행사를 정당한 것으로 만드는 법제도이자, 이주노동자의 권리 제한을 가능하게 하고 그들의 생사여탈권마저 위협받게 되는 속박임이 분명한 것처럼 보인다.

K씨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는 불안감 보다는 고국에서 자신의 송금을 기다리는 가족의 상황이 더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이직의 이유를 설명하였으나, 그가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되면서 경험하게 되는 불안감과 공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위협적이거나 억압적인 것임에 틀림없다.<sup>15)</sup> 그들 스스로가 불법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국가 권력은

14) 한 인권단체 조사결과 지난 2008년 1월부터 2009년 1월까지 구직기간 제한으로 체류 자격을 상실한 이주노동자는 2,450여 명에 이른다(경향신문 2009년 11월 13일자 기사내용 참조).

15) 입국 4개월 만에 이미 회사를 3번 이전한 네팔 이주노동자 렉미는 심한 스트레스로

이들의 몸과 신체, 정신까지 생명정치의 권력이 투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평상시에 느끼는 불안과 공포나 사업주의 부당한 요구와 임금체 불을 강요받게 되는 상황, 불법체류자라는 자신의 신분으로 인해 고립되거나 격리된 채 살아가야만 하는 억압적인 상황,<sup>16)</sup> 단속이라는 말만 듣고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사고 등은 (국가의 물리적인 권력이 강제단속이나 추방과 같은 직접적인 방식으로 이들의 신체, 몸을 통해 투영되어 있지 않더라도) 국가 권력의 메커니즘에 의해 발생한 ‘예외상태’에 놓인 ‘별거벗은 생명’ 그 자체 다름 아닌 것으로 풀이할 수밖에 없도록 한다.<sup>17)</sup>

사례) 다큐멘터리 <우리도 국가의 보호가 필요하다. We Need National Protection 내용>

노마드와 루씨, 그의 친구들은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청주 외국인 보호소로 히치하이킹을 떠난다. 2007년 말 이주노동자 지부의 간부로 있던 미등록 이주노동자 친구들이 ‘단속’으로 인해 청주의 외국인 보호소에 수감되어 있기

---

2010년 1월 자살하였다. 회사 동료 P씨에 따르면, 렉미는 평소에 잠을 잘 못 잤고, “마음이 불안하다, 어지럽다,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하지만, 렉미는 한국에 들어올 때 빗을 저서 집에 돌아가지 못했다.

- MWTV 관련기사 -

[http://mwvtv2009.com/2009/bbs/board.php?bo\\_table=B19&wr\\_id=99&page=5](http://mwvtv2009.com/2009/bbs/board.php?bo_table=B19&wr_id=99&page=5)  
(네팔이주노동자 렉미, 입국 4개월 만에 자살해)

- 16)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강제단속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는 이주민 공동체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생활 범위를 작업장, 집으로 한정시키면서 사회적 활동 범위를 축소시킨다. 단속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공동체 활동을 그만두어야 하거나, 단속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베트남의 한 이주노동자는 그가 죽은 지 8일이 지나서야 시신이 발견되는 등 미등록이란 신분 상태는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고립을 증폭시킨다. 이와 같은 상황은 외부로부터의 권력을 내면화하면서 자동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감시권력의 내면화’, 즉 파놉티콘(panopticon)의 단상을 보여준다(푸코 1998).

- MWTV 관련 기사 및 영상 -

[http://mwvtv2009.cafe24.com/2009/bbs/board.php?bo\\_table=B04&wr\\_id=30](http://mwvtv2009.cafe24.com/2009/bbs/board.php?bo_table=B04&wr_id=30)(어느 베트남 이주노동자의 죽음)

- 17) 합법적인 이주노동자도 ‘예외상태’의 경험과 ‘별거벗은 생명’의 예외일 수 없다. 이는 2008년 11월 마석의 대대적인 강제단속 과정에서 드러나는데, 당시 2,600여 명의 출입국 단속반원들은 미등록 이주노동자인지, 합법 이주노동자인지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100여 명의 이주노동자들을 폭력을 동원해 ‘마구잡이 식’으로 강제연행 하였다.

때문이다. 이들은 히치하이킹을 하면서 만난 한국인들에게 ‘외국인 보호소를 아느냐?’고 질문을 던진다. 한국인들 대부분은 ‘잘 모른다.’고 대답하거나, ‘중소기업의 악덕업주의 피해에서 이주노동자를 도와주기 위한 곳, 그런 외국인들을 보호해 주는 곳이 아니냐?’고 이야기한다. 한편 노마드와 루씨는 청주로 가는 중간 중간에 ‘청주로 간 친구들이 연락을 하지 않는다. 외국인 보호소가 너무 재미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연락하는 것도 잊은 것 아닌가. 우리도 외국인 보호소에 가고 싶다. 우리들도 외국인 보호소에서 빨리 가서 보호 받고 싶고, 한국 정부가 우리들도 보호해 줬으면 좋겠다’며 노래하듯 이야기한다. 이들은 청주 외국인 보호소에 도착하여 다음날 외국인 보호소에 감금당하고 강제 추방 과정 중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게 된다. 친구들과의 면회가 끝나고 보호소 밖으로 나온 이들은 ‘외국인 보호소는 별로 재미없는 곳이며, 있고 싶지 않은 곳’이라고 이야기한다.

위에서 제시된 다큐멘터리는 2007년에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미디어 활동가 양성프로그램을 통해 미디어 교육을 받은 캐나다 출신의 노마드 플레이가 청주 외국인 보호소에 갇혀 있는 이주노동자 활동가를 찾아 면회에 가는 과정을 그린 다큐멘터리이다. 이 다큐멘터리에서 나타나는 문제의식 중 하나는 범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합법이라는 체류시간이 지남과 동시에 ‘불법’이라는 지위가 부여되는 순간 국가에 의해 이주노동자의 위치가 ‘합법적으로’ 감금되거나 추방되는 것이 마땅하거나, 죽도록 만드는 것이 가능한 ‘별거벗은 생명’으로 전락한다는 것이며, 또 다른 지적은 ‘불법체류자’와 ‘외국인 보호소’라는 감금하는 장소의 명칭(significant)에 대한 것이라 하겠다. 이는 이주노동자와 한국사회 사이의 이미지나 메타포가 ‘악/선, 불법/합법, 위협/안전, 아노미/질서, 배제/지배’라는 이분법적인 구도를 형성하고 있음을 의미하며(뒤르케임 1992; 더글라스 1997) 이러한 메타포를 형성하는 주체인 국가나 한국사회는 (감금소나 수용소라는 명칭 대신) ‘보호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마치 외국인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긍정적인 뜻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재현함(signifie)으로써, 불법체류자인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몸과 신체에 행사하는 강제력이나 물리력을 교묘하게 은

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홀(Hall 1997)은 특정한 정체성이거나 이미지는 문화체계 속에 재현되는 방식을 통해 형성되고 인식된다고 하면서, 정형화가 일종의 재현을 실천하는 행위라고 이야기한다. 그는 타집단의 차이를 드러내며(marking), 그러한 차이를 본질화하고(essentialization), 특정한 특성으로 환원하며(reductionism), 자연화하고(naturalization), 이분법적으로 대비하고(binary opposition), 특정한 부분에 집착하거나(fetishism), 부정하면서(negation) 그 사회의 지배적인 시각에 부합하는 이미지를 만들어 간다고 이야기한다. 홀의 논의를 통해 위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이주노동자에 결부된 불법의 이미지는 이주노동자를 본질화되지 않은 주체성을 가진 존재로 전제하고 이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환원하여 본질화하는 위험을 내포하는 동시에 (이들은 ‘위험한 범죄자’ 그 자체인 것이다) 이들에 대한 상징적, 물리적 폭력을 자연스럽게 행사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범법행위에<sup>18)</sup> 근거한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체류기간, 외부자, 시민권, 민족, 영토, 국가, 경제적 격차라는 기준을 통해 상대를 특정 이미지로 타자화 하면서 자신의 우월성, 우위성을 드러내는 이분법적이며 위계적인 관계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가가 — 법의 실행과 중지, 특정 이미지의 생산과 유포 등의 — 다양한 권력 행사를 통해 스스로를 ‘정치적으로 올바르’(politically correct) 주체로 만들어 버리는 문제 또한 내포하고 있다 (스피박 2005; 사이드 2007). 국가는 특정한 권력행사 방식을 통해 내부에 포함된 외부를 배제하는 동시에 ‘포함’함으로써(아감벤 2008) 국민 국가의 틀과 내적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속셈을 감추고 있는 것이다.

---

18) 가령 불법체류자라는 명칭에 부여된 ‘범죄자’라는 이미지는 실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범죄율을 고려해볼 때 부당한 이미지라 하겠다. 최영신(2007)의 연구에 따르면 인구 100,000명당 한국인과 불법체류자의 범죄율은 한국인에 비해 불법체류자의 범죄율이 1/5보다 낮은 수준이며, 이러한 사실은 대부분의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범죄를 발생시키는 위험요소라기보다 오히려 열악한 생활환경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내국인에 의해 범죄피해를 당할 수 있는 범죄피해 취약집단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도 국가의 보호가 필요하다>라는 제목에서 ‘우리’가 누구를 지칭하느냐에 대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라고 지칭되는 노마드와 루씨는 서구 백인 남성들로서 당시에 이들 역시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였다. 그러나 다큐멘터리 속에서 히치하이킹을 하며 청주까지 내려가는 과정은 이들의 몸과 신체가 얼마나 자유로운가를 상상하게 해준다. 국가의 신체에 대한 물리력이나 강제력이 가장 강력하게 투영되는 장소인 외국인 보호소에서조차 이들의 자유분방한 모습이 상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국사회가 외국인을 바라보는 시선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며, 서구 백인(이라 일컬어지는 이들)의 위치와 제3세계에서 온 이주노동자의 위치 사이에 각각 공통점과 차이점이 관념적으로 그리고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공통점이란 이 둘 모두는 ① 각각 국민국가의 경계 외부에 위치한 자들이라는 것이며, ② 그 둘에 대한 한국사회의 ‘규칙성’의 행사가 ‘동일하게 정지되거나 중지되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뜻한다. 정지되거나 중지되는 상태에 놓인 이들의 위치는 국가와 한국사회의 시선이 개입됨으로써 하나는 국가의 강제력이 몸과 신체를 통해 행사되는 ‘벌거벗은 생명’이 되는 반면, 다른 하나는 범접할 수 없는 ‘신성한 생명’<sup>19)</sup>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이주민 미디어 활동가들은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위와 같은 모순점과 은폐된 시선을 그들만의 시선으로 미디어를 통해 드러냄으로써 한국사회와 국가가 이주노동자에게 행사하는 권력과 폭력의 부당함을 고발하고 있다. 그동안 재현의 대상의 위치에 머물러 있다가 미디어를 통해 재현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섬으로써 한국사회와 이주노동자간의 권력관계를 전도시키며 한국사회에 은폐된 시선을 재사유하도록

19) 본 연구자가 한국사회 서구 백인을 ‘신성한 생명’으로 묘사한 것은 아감벤(2008)이 사용한 의미와는 별개로 ‘벌거벗은 생명, 죽어도 처벌받지 않는 생명’으로 간주되는 이주노동자의 존재에 대비되는 범접할 수 없는 ‘초월적 생명’으로서의 서구 백인을 묘사하기 위해 아감벤의 ‘신성한 생명’이라는 용어만 차용한 것이다.

하는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 3) 재현의 주체로서 이주민 미디어 활동가

(마북, 11년 체류, 방글라데시인, 현재 다큐멘터리 감독 겸 영화배우)

주류 언론에서 나오는 이주노동자의 모습은 한국인들을 눈물 흐르게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의 상황을 제대로 알려주지 못했다. 개인적으로 여러 언론들 이랑 인터뷰를 할 때조차 이러한 시선들을 느낀 거지. 아직도 한국 언론은 우리를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로 소개하고 있잖아. 이런 주류 방송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해서 이주노동자 스스로가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방송이 만들어져야한다고 생각했어. 미디어의 대상뿐만 아니라 주체도 이주노동자여야 한다고 생각했어.

(미누, 17년 체류, 네팔, 현재 MWTV 영상팀장)

공영 방송 쪽이든 아니면 언론 쪽에서든 아니면 ‘미녀들의 수다’든 보다보면 사실상 지금 가장 아프고 썩어있는 것은 하나도 밝혀지지 않으면서 뭐가 다 미화해서 표현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또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니까 봐줘야 된다는 식의 그런 특히 종교 쪽에서는 시혜적 차원으로만 이주민들을 다가가려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사실 결혼 이주민들도 그렇고 이주노동자들도 그렇고 굉장히 다 학력들이 높아요. 그리고 그런 인간으로서의 독립된 주체로서 그렇게 살아왔던 분들이고, 한국 사회에서 미등록이라 할지라도 그 분들은 한국사회에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시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독립된 인간으로서 인격체로서 존중하지 않는 것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있죠. 그것에 저희는 가장 좀 불만인 거구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목소리를 스스로 이주민들이 내지 않으면 그것은 확보될 수 없다고 저희는 판단해요. 그래서 이주노동자들이 직접 주체적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마북과 미누의 사례에서 보듯이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 이주민을 둘러싼 재현의 문제는 그들이 자신의 사회·문화적 정체성을 스스로 대표할 어떠한 통로나 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이는 대중매체나 언론에 의해 보이지 않기에 한국인들이 이들의 현실이나 문제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 대한 특정한 재현방식



을 우리가 가장 선호한다는 점이 문제라 하겠다(한건수 2003; 김현미 2008). 윤태선(2002)의 연구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뉴스 보도 내용은 이주노동자관련 범죄가 47.1%로 23.1%를 차지한 인권관련 뉴스보다 더 많이 보도되고 있다.<sup>20)</sup>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뉴스보도의 많은 부분이 범죄라는 사실은 미디어에서 다루어지는 그들에 대한 한국사회의 위협이나 두려움, 부정적인 인식을 증명한다(이선화 2007). 아울러 이주노동자의 얼굴은 ‘가난, 더러움, 나태함, 무지, 무식, 불쌍함, 비정상, 구제의 대상’이라는 이미지로 재현되면서, 우리의 이미지는 ‘부유함, 깨끗함, 근면, 성공, 정상, 시혜의 주체’라는 것을 상징하게 한다. 이주노동자에게 부여된 이미지를 보는 우리는 그 이미지와 동일시되지 않는다. 기표는 기의로부터 분리되며, 기표는 자신의 자율성으로 인해 그것이 드러내고자 하는 바를 특정한 방식으로 재현하게 된다. 기표 속에서 주체의 표상은 표상된 객체와 만나고 표상들의 연쇄를 통해 질서를 생산한다(하버마스 1998). 즉, 이미지의 생산과 배열, 그것의 상연(play)과 유포는 주체와 객체사이의 질서를 생산하고, 위계를 재생산하게 되는 것이다. 베틀러(2008)는 “메시지를 전달받는 것, 이름을 부여 받는다는 것, 일군의 강요에 종속된다는 것, 강요하는 이타성에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는 이미 어떠한 폭력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메시지를 전달받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의지를 박탈당한다는 것이고, 그런 박탈은 담론 안에 위치한 우리의 상황을 토대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재현된 이미지는 위계적인 질서를 생산할 뿐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타자를 포섭하거나 이해하기보다는 배제와 분리를 통해 소외, 고립시키는 결과를 야기 시킨다. 타자에 대한 소외와 고립은 위계와 지배질서를 강화시키며 ‘폭력’의 행사까지도 가능하게 한다. 이는 재현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재현의 언어를 가진 자와 못 가진

---

20) 문제는 최영신(2007)의 연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현된 이미지가 실제 사실과 괴리된 채 발생한다는 점에 있다.

자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우리는 위 뿌라와 미누의 사례를 통해 스스로를 재현할 기회를 얻지 못한 이들은 인간 이하로 간주되거나 아니면 전혀 간주되지 못함으로써 인간성, 주체성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위험을 감수해야만 한다는 가정을 발견하게 된다. 반대로 재현을 획득하는 이들은 — 특히 자기재현을 획득한 이들 — ‘인간화’될 수 있는 혹은 주체성을 발현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를 갖는다는 가정 또한 간파할 수 있다. 재현자의 위치에서 올라선 이주민 미디어 활동가들은 한국사회에서는 간과되어 왔던 이미지를 생산, 배열함으로써 기존의 자신에게 부과된 이미지를 전복시키려 한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이들의 일상성과 주체성을 드러냄으로써 한국사회의 타자화된 재현방식과 차별화하려는 전략이자, ‘자기긍정’을 드러내는 표현방식이다.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일종의 저항의 한 방식인 것이다(Scott 1985; 정가영 2008 재인용). 가령, 이들의 영상에는 이주노동자 가정의 평범한 생활모습이 나타난다. 아침을 준비하고, 장을 보고, 회사에 가서 일을 하고, 퇴근 후 친구를 만나 담소를 나누는 이주노동자 여성의 모습은 따분할 정도로 지극히 평범한 이미지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영상이 안겨주는 따분함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이주민의 일상적인 모습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는 범법 행위를 저지른 범죄자란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며, 가난하기 때문에 도와줘야하는 시혜와 동정의 대상도 찾아 볼 수 없다. 이 영상은 이주노동자도 우리와 다른없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겨울철 독거노인의 집과 저소득층을 찾아 연탄을 나누어 주는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들의 모습 역시 마찬가지이다. 영상 속 한 방글라데시 노동자는 “할머니, 할아버지 나이가 많이 드시고 어려운 사람들에 이 것(연탄) 줄 수 있으면 진짜 한국에 와서 일도하고 이런 것(봉사활동) 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재미있어요”라고 이야기한다. 이 영상에서는 그들이 동정과 시혜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인격체이

자 호혜성을 실천하는 한국사회 한 구성원이라는 점이 부각된다. MWTV의 미디어 교육을 통해 ‘We Make Korea’라는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한 이주노동자 교육생은 자신이 작업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스티로폼으로 기타와 신디사이저를 만들어 동료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그는 마이크를 움켜잡고 “누가 뭐래도 우리는 노동자, 피땀 흘리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세상을 바꾸는 한국을 만드는 노동자”라며 노래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긍정하고 있다. 이처럼 이주민들이 만든 미디어는 불평등한 관계 설정을 전복시키고, 훼손된 정체성을 스스로 회복하고자 하는 ‘자기 제시의 드라마’(self-representation drama)인 셈이다.

이렇듯 MWTV가 생산하는 미디어 속 이미지들은 자신이 재현자인 동시에 스스로 재현의 대상이 됨으로써 이러한 위계와 질서를 전치시키고, 불쌍함, 가난, 연민 등 시혜의 대상이 아닌 호혜성이 발휘되는 이주노동자와 이주민의 주체성을 미디어를 통해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이주노동자가 추방되어야 할 ‘벌거벗은 생명’이 아닌 한국사회 한 구성원임을 주장하는 것으로, 이주노동자와 한국사회 사이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고 한국사회와 이주민 간의 관계의 평등성을 회복하려는 시도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우리는 이들의 미디어 활동과 상영하는 미디어 내용이 ‘인정투쟁’ 혹은 ‘인정정치’의 한 양상임을 알게 된다. 프레이저(Fraser 1997; 정가영 2008 재인용)에 따르면 인정의 정치란 표현, 해석, 의사소통의 사회적 양식에 뿌리 내린 ‘문화적 부정의’(cultural injustices)를 바로잡는 것으로써, 이 때 문화적 부정의에는 문화적 지배(cultural dominance), 불인정(non-recognition), 그리고 경멸(disrespect)이 포함된다. 무시와 굴욕, 수치 등의 경험에 기초하여 갖게 되는 ‘부정의 도덕적 감정’은 개인이 정체성을 침해당하는 체험이자, 사회적 인정투쟁의 동력을 형성하는 매개로 작용한다 (Honnet 1992). 프레이저는 비천하게 여겨진 집단의 손상된 정체성과

문화적 산물들을 상향적으로 재평가할 수 있도록 문화적 또는 상징적 변형을 가하거나, 문화적 다양성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통해 진정한 인정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특정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받고자 한다는 점에서 인정의 정치는 ‘정체성 정치’(politics of identity)이기도 한 것이다(정가영 2008). 이러한 정체성 정치의 내용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정 다름 아닐 것이다.

##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이주민들에게 투영되는 근대국가의 폭력성이 어떠한 맥락에서 발생하며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이주민 미디어 활동가들이 농성장에서의 투쟁과 미디어 활동을 통해 이러한 폭력성에 어떻게 저항하는지를 미시적 수준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연구자는 이주민 미디어 활동가의 활동 양상과 이들이 생산하는 미디어 내용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들을 둘러싼 ‘생명정치’(bio-politics)와 사회적 존재로 인정받으려 하는 ‘정체성 정치’의 두 축이 경합하고 있음을 보여주려 하였다. 이는 이주노동자의 삶을 ‘벌거벗은 생명’(Homo sacer, bare life)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하는 구조화된 아포리아(aporia)가 강하게 존재하고 있음에 대한 문제설정이자, 이에 저항하는 이주민 미디어 활동가의 전략적 행위에 대한 내용이다.

연구자는 벌거벗은 생명의 탄생 즉 추방 가능한 ‘불법체류자’라는 존재설정에 대한 문제를 합법과 불법의 문제라기보다 근대국민국가의 존속과 관련된 국가 권력에 관한 문제로 바라보고자 하였다. 푸코의 문제의식처럼 근대국민국가는 생명자체를 정치의 쟁점으로 만드는 동시에 벌거벗은 생명에 대한 권리의 박탈과 유보, 인지할 수 없는 존재들의 영역을 생성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며, 이들의 배제를 통해 존립의 정당

성과 존속의 이유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우리의 국민 혹은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을 국가 경계 밖으로 밀어내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의사결정인 것처럼 보인다. MWTV의 구성원 중 한 사람인 미누가 2009년 10월 강제추방 되었을 때, 몇몇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미누의 강제추방을 저지하기 위한 운동을 다각도로 펼쳤지만, 한국의 네티즌들은 ‘범죄, 범법행위’로 결부시켜 미누의 강제추방을 정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sup>21)</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아니면 저것’(ether... or...)이라는 이분법적 관념의 질서로부터 일상화된 혼돈의 압력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세계 내부의 변화는 더 이상 이러한 사유체계가 확고부동한 질서로 귀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환기시키게 한다. 소위 세계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전개되면서 세계시민주의적 주장과 강하게 결부되어 나타난 다문화주의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 한 예이다. 더군다나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이분법적 질서체계 내에 ‘이것이면서 동시에 저것’(both... and...)이라는 실체들이 자신의 존재의 이유에 대한 정당성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분법적 사유체계는 점차 설득력을 잃게 되어 버린다(로잘도 2002).

연구자는 자신의 존재 이유에 대한 정당성을 드러내고 훼손된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단초를 이주민 미디어 활동가들의 모습과 그들의 주장이 담긴 미디어를 통해 살펴보려 하였다. 이들의 활동 내용은 자기 재현의 드라마, 인정투쟁, 정체성의 정치의 실천이기도 하지만, 한국사회를 자신들의 시각과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했던 일종의 ‘타자화’ 작업이기도 하다. 이주민 미디어 활동가들이 제시한 자기 재현의 드라마는 결국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가 되는 셈이다. 자기 재현의 드라마를 통해 우리를 낯설게 보도록 하는 의도적 행위가 우리의 의식적 행위에 대한 수정과 변화, 전환과 성찰을 요구하

---

21) 미누의 강제추방 과정에 대한 내용은 정성신(2010) 학위논문의 5장을 참조.

고 있는 것이다. 이주민 미디어 활동가들은 ‘다문화 사회’로 호명되는 한국사회에 주체와 타자사이 관계의 불평등성에 대한 재고와 ‘복수의 우리’에 대한 상상의 가능성을 열어놓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논문접수일: 2011년 10월 11일, 논문심사일: 2011년 12월 10일, 게재확정일: 2011년 12월 23일

## 참고문헌

김광억

1991 “저항문화와 무속의례”, 『한국문화인류학』 23: 131-172.

2010 “다민족 국가와 다문화 사회: 한국의 미래”, 『지식의 지평』 8: 10-26.

김현미

2008 “이주자와 다문화주의”, 『현대사회와 문화』 26: 57-78.

더글라스, 메리

1997 『순수와 위협』, 유제분, 이훈상 공역, 서울: 현대미학사.

뒤르케임, 에밀

1992 『종교 생활의 원초적 형태』, 노치준 역, 서울: 민영사.

레비, 피에르

2001 『집단 지성』, 권수경 역, 서울: 문학과 지성사.

로잘도, 레나토

2002 『문화와 진리: 사회분석의 새로운 지평을 위하여』, 권숙인 역, 서울: 아카넷.

버틀러, 주디스

2008 『젠더 트러블』, 조현준 역, 서울: 문학동네.

백, 율리히

1997 『위험사회: 새로운 근대(성)를 향하여』, 홍성태 역, 서울: 새물결.

사이드, 에드워드

2007 『오리엔탈리즘』, 박홍규 역, 서울: 교보문고.

스피박, 가야트리

2005 『포스트식민 이성 비판』, 태혜숙 역, 서울: 갈무리.

심보선

2006 “이주노동자의 미디어 문화 활동과 정체성 정치”, 『한국사회학』 6: 223-243.

아감벤, 조르주

2008 『호모 사케르』, 박진우 역, 서울: 새물결.

아파두라이, 아르준

2004 『고삐 풀린 현대성』, 차원현, 채호석, 배개화 공역, 서울: 현실 문화연구.

앤더슨, 베네딕트

2002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관한 성찰』, 윤형숙 역, 서울: 나남출판,

유명기

1995 “재한 외국인 노동자의 문화적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인류학』 27: 145-182.

1997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문화”, 『노동연구』 13: 69-98.

윤태선

2002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텔레비전 뉴스 보도 성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선화

2007 “두려움과 공존 사이에서: 외국인노동자 유입에 대한 도시지역 원주민의 대응”,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가영

2008 “재한 몽골 이주 청소년의 생활세계와 인정의 정치”,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성신

2010 “다문화 한국사회의 ‘생명정치’와 ‘정체성 정치’: 이주민 미디어 활동가의 사례”,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최영신

2007 “외국인의 불법체류와 외국인범죄”, 『형사정책연구』 18(3): 1319-1340.

푸코, 미셸

1990 『삶의 의지』, 이규현 역, 서울: 나남출판.

1997 『자기의 테크놀로지』, 이희원 역, 서울: 동문선.

1998 『감시와 처벌-감옥의 역사』, 오생근 역, 서울: 나남출판.

하버마스, 위르겐

1998 “인문과학의 이성 비판적 폭로: 푸코”, 이진우 역, 『현대성의 철학적 담론』, 서울: 문예출판사.

한건수

2003 “타자만들기: 한국사회와 이주노동자의 재현”, 『비교문화 연구』 9(2): 157-193.

함한희

1997 “외국인 노동자의 갈등과 적응”,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99-129.

헌팅턴, 새뮤얼

1997 『문명의 충돌』, 이희재 역, 서울: 김영사.

Butler, Judith & Spivak, Gayatri, Chakravorty

2007 *Who Sings the Nation State?: Language, Politics, Belonging*, London; New York: Seagull Books.

Fraser, Nancy

1997 *Justice Interruptus: Critical Reflection on the Post-Socialist Condition*, New York: Routledge.

Giddens, Anthony

1990 *Consequence of Modernity*, Berkeley: California University



Press.

Hall, S.

1997 *Representation: Cultural Representations and Signifying Practices*, London: Sage.

Honneth, Axel

1992 *Struggle for Recognition: The Moral Grammar of Social Conflict*, Polity Press.

Louie, Andrea

2000 “Re-territorializing Transnationalism: Chinese American and Chinese Motherland,” *American Ethnologist* 27(3): 645-669.

Lewellen, T. C.

2003 *Political Anthropology*, Westport and London: Praeger.

Mead, G. Herbert

1963 *Mind, Self and Society*,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Schiller, Glick

1999 “Transmigrants and Nation-State: Something Old and Something New in the US Immigrant Experience,” in Hirschman, et al., eds., *The Handbook of International Migrant*,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pp. 94-118.

Schiller, Glick & Fouron

2001 “The Blood Remains Haitian: Race, Nation, and Belonging in the Transmigrant Experience,” *Perspectives on the Caribbean*, Wiley-Blackwell. pp. 256-282.

Smith, Robert C.

2003 “Migrant Membership as an Instituted Process: Transnationalization, the State and the Extra-Territorial Conduction of Mexican Politic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7(2): 297-343.

Scott, J. C.

1985 *Weapon of the Weak: Everyday Forms of Peasant Resistance*,  
New Haven.

Tsuda, Takeyuki

2003 “Transnational Communities Without a Consciousness?,”  
*Strangers in the Ethnic Homeland*,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pp. 221-262.

<참고자료>

미디어액트, 국경 없는 네트워크의 실현 이주노동자 방송 토론회 자료, 2006  
년.

경향신문 2009년 11월 13일자 기사

<http://www.mwtv.or.kr>: MWTV 이주노동자 방송국 홈페이지

<http://fes.kbiz.or.kr>: 중소기업 중앙회 홈페이지

〈Key concepts〉: migrant media activists, migrant workers, bio-politics, politics of identity, politics of recognition, nation-state, Homo sacer, bare life, social being

## From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to Migrant Media Activists:

A Case Study of MWTV Migrant Media Activists

Jung, Sung Shin\*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the emergence of the migrant media activists and a migrant media as known as MWTV (Migrant Worker's TV) in Korea. The migrant media activists were migrant workers before, but now they actively have engaged in media works concerning various migrant workers' issues as PDs, anchors, reporters, journalists without migrant working any more. This phenomena looks like a part of multi-culturalism in Korea but actually it doesn't. This is about the matter of migrant workers' life and their identity (or representation of their identity).

This study regards their activities and the migrant workers' issues (or matters) in Korea as the matter of bio-politics and politics of identity. Increasing the number of migrant workers, Korean government considered the overflow of the migrants as the risk of

---

\* M.A. in Anthrop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nation-state because it could break down the boundary of the nation-state and the citizenship. In conclusion, the nation-state needed to set up the policy of the migrant worker and forced them to be expelled from Korea. In this respect, the deportation or the crackdown policy against the migrant workers means new way of governance in order to control its population and practice to degrade them to 'Homo sacer' or 'bare life.'

Using media such like TV and internet, migrant media activists resist the violence of the nation-state which degrades them to Homo sacer or bare life and carry out their various activities to achieve their rights. As PDs, anchors, reporters and journalists not the migrant workers, they try to solve migrant worker's matters or problems in their view and reveal the unreasonable migrant worker policy continuously through the media. In the media, migrant media activists demand the government and Korean society to change its attitude concerned with migrant workers and to correct its distorted view and they call for the recognition of their social rights.

This study could examine their subjectivity and empowerment by tracing the process or the details in which they became social being from bare life and showing their legitimate rights which they argue as workers and 'new residents.'